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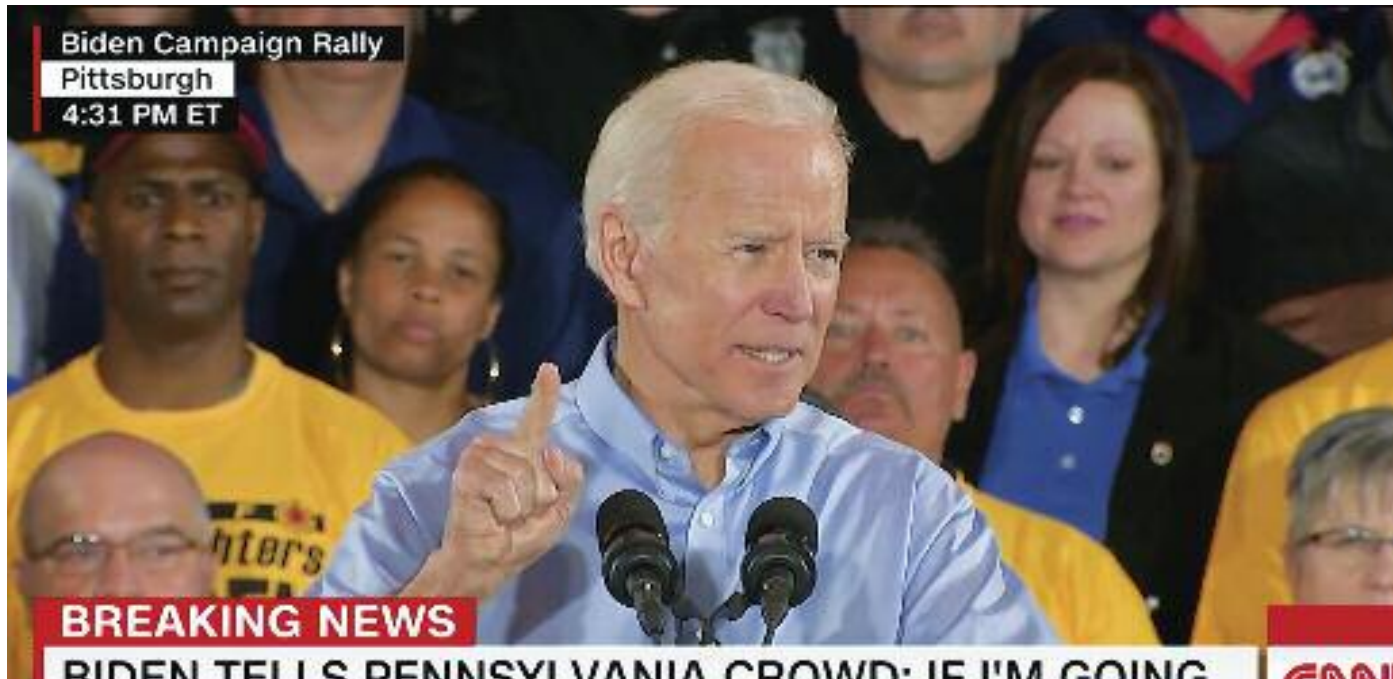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대선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후보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이 30일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진은 CNN 방송 화면캡처

출마선언 후 여론조사 크게 앞선 바이든 '대세론'

고령의 민주당원 및 비백인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
출마선언 효과 사라지면 진정한 지지율 나올 것
바이든과 대결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가장 유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
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세론이 확산될 것인가에 시선이 집
중되고 있다.
4월 23일 목요일 아침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바이든은 4월 30일 발표된
4개의 미 지역 여론조사에서 컨벤션 효과를 누
리며 확고한 1위를 고수했다. CNN의 여론조사
에서 바이든은 39%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난 3
월 같은 여론조사 28%에 비해 무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CNN의 조사에서 바이든은 2위인
15%를 기록한 샌더스 후보의를 큰 격차로 앞섰
다. >>7면으로 계속



보스톤라틴고교(Boston Latin School)

유에스뉴스 학교평가 MA주 최고 학군 입증

매사추세츠 주내 절반가량의
고교들이 미국상위 25%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공립 고등학교들의 평균적인 교육
의 질은 미국내 최고인 것으로 평가됐다. 매
사추세츠는 전국적으로 두드러지는 학교는
비교적 적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위에 랭
크됐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news &
worldreport)가 30일 발표한 미국내 최고고등
학교 순위에 따르면 100위 안에 든 매사추세
츠 고등학교는 전체 33위를 기록한 보스톤라
틴 고교 (Boston Latin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서울
직항항공권

항공권 \$1,198~

IACE TRAVEL
617.424.8956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북부보스톤감리교회 제 4회 경로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부보스톤감리교회(담임 최진용 목사) 상록회는 남녀선교회와 함께 뉴잉글랜드 지역 노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6.25 참전용사 등을 초대해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감리교회에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저녁식사를 겸해 진행된 행사는 경로잔치는 연로한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중창단과 가야금 연주, 노래, 게임과 상품, 매직 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식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이기환상록회 회장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며 “특히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고 밝혔다.

북부보스톤교회 상록회는 2006년 3월부터 매달 2, 4주째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 이 상록회 모임에는 현재 50~60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오전에는 40분 예배 후 건강체조, 건강강좌, 건강

요리 강습, 공작, 요가, 무용 연습, 난타 연주, 바둑 두기, 탁구 연습, 기타 배우기 등의 다양한 문화교실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북부보스톤교회 노인사역부가 맛있는 한식 점심식사를 준비해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간이 미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매달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보스톤한미노인회 사랑방 모임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노인회 사랑방 모임과 북부보스톤 상록회 모임을 참석하게 되면 거의 매주 노인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록회는 계절별로 봄 운동회, 여름 바닷가 나들이, 가을 단풍놀이, 설 잔치도 마련한다. 그 외 대외 행사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담요만들기와 Lynn지역의 캄보디아 불우학생들을 위한 후원도 한다.

누구든지 상록회에 참석해 건강하고 은혜롭게 노후를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록회 모임에 대한 문의는 이기환상록회장(781-572-8044), 정대훈 남선교회장(917-842-1370)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3회 경로잔치 모습



24일 올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점심을 마치고 노인회원들이 단체촬영을 가졌다

설령탕 먹으러 올스톤 가는길, "소풍가는 기분"

서울 설령탕 한미노인회회원 식사 대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스톤에 위치한 서울설령탕이 보스톤한미노인회 회원들을 초대해 서울설령탕에서 도가니탕과 설령탕 점심을 대접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회원들은 서울 설령탕을 방문해 점심을 들었다.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승합차로 보스톤을 향하는 길에 노인회 회원들은 “어릴 때 소풍가는 기분”이라며 즐거워했다. “이거 하나 드셔 보셔! 아주 맛있는 거야” 서로 먹거리를 권하며 인사도 하고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뉴햄프셔에서 기차를 타고 올스톤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노인회원들과 서울설령탕에서 식사한 윤철호 노인회장은 “매년 한미노인회 회원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서울설령탕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두분 사장님 초대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고 감사를 표했다. 노인회는 즉석에서 강원도 산불재난피해복구 기금을 모금해 \$300을 전달했다.

박천우 사장은 “다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강원도 산불 재난피해복구 현금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서영애 노인회 총무는 “우리 한미노인 회원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 설령탕사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감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018년 유공 재외동포 포상자로 선정된 이길자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과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의 수상 모습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2019 유공 재외동포 포상자 추천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외교부는 2019년 제13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올해도 유공 재외동포를 선정,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한국 내 유공자 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은 한인들 개인 및 단체 또는 기업 등 모두가 가능하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추천도 가능하다. 여러 사람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번을 적어야 한다.

유공 포상 대상자로는 개인 및 단체

모두 추천 가능하다. 포상 대상자의 공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국민훈장, 10년 이상인 경우 국민포장, 5년 이상인 경우 표창 수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나 소송 및 민원, 언론 보도 등으로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유공 포상자 추천 제한 대상의 자세한 규정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문의(bjkim12@mofa.go.kr) 할 수 있다.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신장, 대한민

국국위선양을 위해 공로가 큰 인사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원할 경우, 공적조서와 정부포상동의서를 작성해 5월 15일 수요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외교부는 포상자를 10월까지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추천서 접수: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reet, 2nd Floor, Newton MA 02458

bostonkorean@hotmail.com



통일골든벨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

평통 제3회 통일 골든벨 개최 참가신청 접수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지역협의회는 통일골든벨 행사를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5월 11일 오후 2시 개최한다.

보스톤 지역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 KBS역사통일골든벨 행사의 보스톤 지역 예선의 형태로 치루어진다. 한국 본선 진출은 고등학생만 가능하다.

올해 3번째인 대회의 상금은 지난해보다 많은 대상 1명에게 \$300,

최우수 고학년, 저학년 2명에게 각각 \$200, 우수상 2명 \$100, 장려상 5명 \$50씩 지급한다. 전체 참가자에게 상장이 수여되며 행사 후 저녁도 제공된다. 보스톤 지역 우승자에게는 한국에서 열리는 KBS역사통일골든벨 본선 출전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이현경준비위원장 nuacbostonhyun@gmail.com에

게 할 수 있다. 예상문제집과 신청서는 <https://sites.google.com/site/2019nuacbostonchapte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유에스뉴스 선정 2019 매사추세츠 최고 고교

보스톤 라틴 부동의 1위, 차터스쿨의 약진 두드러져
렉싱턴하이स्क울 주내 4위로 여전히 강세 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라틴 스쿨이 매사추세츠 최고 고등학교로 선정됐다. 보스톤 라틴은 미국내 고교중 전체 33위를 차지하며 매사추세츠 주내에서는 유일하게 100위권에 드는 학교가 됐다.

& worldreport)는 30일 미국 50개 주 23,000여개 공립고등학교를 6개 기준으로 선정한 최고의 고등학교 순위를 발표했다. 보스톤 라틴 스쿨에 이어 2위에 오른 학교는 말보로에 위치한 어드밴스드매스앤드사이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

(Advanced Math &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 전국 157위), 3위는 하이애니스에 위치한 스타지스 차터스쿨(216)이었다. 4위는 렉싱턴하이स्क울(255), 5위는 보스톤에 위치한 보스톤라틴아카데미(266)가 차지했다.

합킨턴하이स्क울, 도버-셔본하이स्क울, 하버드(Harvard)에 위치한 더브롬필드스쿨, 벨몬트하이स्क울, 맨체스터 소재 맨체스터에섹스리저널하이स्क울이 6위부터 10를 차지했다.

유에스뉴스의 선정 기준은 12학년 재학생들의 AP나 IB 시험 참여와 성취 수준을 통한 대학 준비도, 졸업에 필수인 영어와 수학 학습 성취도(Math and Reading Proficiency), 유에스뉴스가 소수민족, 저소득층 등 요인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영어수학 학습 성적(Math and Reading Performance), 저소득층 및 흑인, 라틴 학생의 성적 등이었다. AP나 IB 시험 응시율 등이 고려됐다.

이번 선정 결과 차터스쿨이 30위 안에 상당수를 차지해 차터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차터스쿨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타운의 소득수준, 학군의 질 등과 상관없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전통의 학군에 대한 개념을 흔들고 있는 상태다.

hsb@bostonkorea.com



말보로에 위치한 어드밴스드 매스앤드사이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 12학년들과 졸업생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유에스뉴스 학교평가, MA주 최고 학군 입증

▶▶ 1면에 이어서

School)가 유일했다. 보스톤라틴을 제외하고 말보로에 위치한 어드밴스드매스앤드사이언스아카데미차터스쿨(Advanced Math and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이 전체 157위를 기록했다.

미국 50개 주 23,000여개 공립고등학교를 6개 기준으로 평가한 이번 순위 발표에서는 총 1만7천여 학교를 순위에서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츠 주는 전체적인 고등학교들의 실력이 있어서는 두드러졌다.

전체 고등학교 상위 25%내에 진입한 학교들을 주별로 비교했을 때 매사추세츠 소재 약 절반에 달하는 48.8%의 학교들이 미국내 상위 25% 안에 포함됐다. 2위인 메릴랜드주 학교들이 43.7%, 캘리포니아 고교들이 40%, 커네티컷이 39.8%로 뒤

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상위 25%안에 약 30% 이상이 선정된 주는 단지 7개 주에 불과했고 25% 이상 선정된 주는 20개 주였다.

유에스뉴스의 선정 기준은 12학년 재학생들의 AP나 IB 시험 참여와 성취수준을 통한 대학 준비도, 졸업에 필수인 영어와 수학 학습 성취도(Math and Reading Proficiency), 유에스뉴스가 소수민족, 저소득층 등 요인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영어수학 학습 성적(Math and Reading Performance), 저소득층 및 흑인, 라틴 학생의 성적 등이었다. AP나 IB 시험 응시율 등이 고려됐다.

hsb@bostonkorea.com

US News MA주 최고 고등학교 순위

1	Boston Latin School	Boston	MA
2	Advanced Math and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	Marlborough	MA
3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Hyannis	MA
4	Lexington High School	Lexington	MA
5	Boston Latin Academy	Boston	MA
6	Hopkinton High School	Hopkinton	MA
7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Dover	MA
8	The Bromfield School	Harvard	MA
9	Belmont High School	Belmont	MA
10	Manchester Essex Regional High School	Manchester	MA
11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Malden	MA
12	John D. O'Bryant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	Roxbury	MA
13	Westwood High	Westwood	MA
14	Wayland High School	Wayland	MA
15	Westborough High	Westborough	MA
16	Winchester High School	Winchester	MA
17	Nashoba Regional	Bolton	MA
18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Everett	MA
19	Wellesley High School	Wellesley	MA
20	Medfield Senior High	Medfield	MA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여러모로 꺾 찬 국제선 기금모금 만찬

미국에서 사는 한인가정들은 이미 '다문화 가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보스톤지회(회장 채명희)가 주최한 기금모금 만찬에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국제선 기금모금 만찬은 참가자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선의 외연도 넓혔다.

보스톤 동북쪽 교외 헤버힐(Haverhill)에 위치한 디버로스 핑션(DiBurro's Fuction) 장소에서 4월 27일 토요일 개최된 기금모금 만찬에는 입양아 출신의 첫 한인 매사추세츠하원의원 마리아 로빈슨을 연사로 초청해 국제선 모임의 의미를 확대했다.

마리아 로빈슨 의원은 "한인사회는 입양아인 자신과 딸을 너무도 환영 해주었다"며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포용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로빈슨 의원은 "입양인들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있다. 그런 입양인들에게 손을 뻗쳐 한인사회 한 부분으로 꺼안아 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6월에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로빈슨 의원은 한인들과 아시아인들의 권리옹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국제결혼 가정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미국에서 사는 모든 한인들은 다문화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의 모임은 의미가 있다"며 보스톤지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총영사는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입양인들도 다문화 한인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선이 포용해야 한다면 향후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밥 김벨 씨는 "과거에는 극소수였던 보스톤 지역의 한인사회가 크게 성장해서 기쁘다. 따라서 사업적, 커뮤니티 문제 등 서로 간에 도와야 한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다.

노인회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한 장우석 보스톤 한인회장은 "한인 전체를 대표해 이자리에 왔다"며 "주정부 또는 여타 단체에 우리 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사회의 일원임을 알리려 한다"며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채명희 국제선 회장은 "모든 수익금은 국제가정선교회에 기부된다"며 "사랑을 나누는 국제선, 행복을 나누는 국제선,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국제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제선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2세 지원, 불우이웃 지원 및 한인사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국제결혼 여성들의 선교단체로 매년 5월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해 왔다.

이날 만찬은 난타 공연, 댄스파티, 경품 추첨 등 여흥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editor@bostonkorea.com



27일 헤버힐 소재 디버로스 핑크션 장소에서 열린 국제선기금모금만찬 참석한 주요 인사들. 좌로부터 김용현 총영사, 장우석 한인회장, 채명희 국제선 보스톤지회회장, 마리아 로빈슨 하원의원



국민의례를 위해 기립하고 있는 참석자들



국제선 기금모금 만찬은 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출마선언 후 여론조사 크게 앞선 바이든 '대세론'

▶▶1면에 이어서

퀴니피악 유니버시티(Qunniac University)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은 비슷한 38%의 지지를 받았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12%로 2위, 그리고 버니 샌더스 의원이 11%, 피트 버티 지지 시장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여론조사인 모닝컨설팅(Morning Consult) 주간 지지율 정례조사(Tracking poll)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난주 30%에서 36%로 상승했다. 지난주 절반은 바이든이 출마 선언 하기 전의 상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출마선언 이후 일간 여론 조사에서는 39%의 지지를 기록했었다.

보수성향 라스무센의 해리스엑스(HarrisX)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은 지난달 29%에서 4포인트 오른 33%로 상승율을 보였다. 바이든의 상승을 폭이 가장 적기는 했지만 여전히 3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4기관의 여론조사 평균을 냈을 때 바이든은 대선 출마 선언 후 8%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 그의 지지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감소를 초래했다. 즉 민주당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바이든의 출마 선언 이후 버니 샌더스는 4포인트가 빠졌고 베토 오로크와 카멜라 해리스는 각각 2포인트, 코리부커와 에이미 클로버카는 각각 1포인트씩 빠졌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이든의 등장이 대부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잠식한 반면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만 3포인트가 되려 오르는 등 예외였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주요 지지기반은 고�령의 민주당원들과 비 백인 민주당원들이다. 이 두 그룹은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층들이다. 바이든은 비백인 유권자들에게서 50%의 지지를 받고 있다. 14%의 지지율 획득에 그친 버니 샌더스 후보와 엄청난 격차다. 바이든은 흑인 민주당 계층에서 무려 43%의 지

지를 기록하고 있다. 샌더스는 20%에 그쳤다. 바이든은 50대에서 64세 사이의 유권자들의 46% 지지, 65세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5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은 강세다. 서퍽대학의 뉴햄프셔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20%, 샌더스와 버티지지는 각각 12%의 지지를 확보했다. 엘리자베스 워렌의원은 8%로 약세를 보였다. 지난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여론조사는 샌더스의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선출마 선언 효과는 조금씩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정치, 경제, 스포츠 여론조사 분석 웹사이트 파이브 서티 에잇(FiveThirtyEight)의 견해다. 샌더스 및 해리스 상원의원도 출마선언 이후 반등했다 하강했으며 오로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마 전에도 28%의 지지를 확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지지율이 상당 수 빠지고 다른 후보들의 유권이 뚜렷해져 막판 상승세를 탄다고 해도 20%대의 지지율로 아이오와 및 뉴햄프셔 경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파이브서티에잇(538)은 다른 대선 후보보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활약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이 다른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는 반면 워렌을 지지하는 층의 표는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다. 워렌은 민주당내에서도 약간 좌편향이지만 바이든은 중도편향이다. 또한 남성 여성으로 갈린다.

바이든은 주로 그의 당선 가능성과 기본적인 주제, 그리고 거대담론, 추상적인 측면에 기대는 반면 워렌은 구체적인 상세한 정책을 밝히는 스타일이다. 워렌은 고헌력 백인층, 바이든은 저학력 백인층과 비백인층의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바이든과 다른 여타 대선후보의 조합보다는 워렌과 대결했을 때 유권자들을 상당수



(왼쪽부터)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4월 23일 목요일 아침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을 밝힌 바이든은 4월 30일 발표된 4개의 미 지역 여론조사에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확고한 1위를 고수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4월 30일 발표)

대선후보	CNN		HARRISX		MORNING CONSULT		QUINNIAC	
	최근	변동	최근	변동	최근	변동	최근	변동
바이든	39%	+11	33%	+4	36%	+6	38%	+9
샌더스	15	-4	16	-2	22	-2	11	-8
워렌	8	+1	6	+1	9	+2	12	+8
버티지지	7	+6	5	+2	8	-1	10	+6
해리스	5	-7	5	-1	7	-1	-8	0

만족시킨다는 분석이다. 2020민주당 대선이 바이든 대 워렌의 대결구도로 좁혀져 진행될 지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지만 워렌과 양자대결로 압축될 경우 워렌은 다른 후보들의 표를 흡수하며 강력한 대권 도전자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샌더스로부터는 진보층 지지자들, 오로크로부터는 고헌력 백인층을 그리고 해리스로부터는 여성유권자를 흡수할 수 있다.

서퍽대학의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5%는 그 이유를 대답하지 못했지만 당선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란 대답이 18%나 됐다. 또한 11%는 엘리자베스 워렌의 냉철한 접근이 호소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나 너무 화나보인다(9%), 너무 좌편향(8%) 등이었다. 그러나 타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상승세를 타면 위의 문제들은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마틴스 파크' 보스턴 어린이 박물관 맞은편의 새로운 놀이터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희생자 마틴 리처드 기념 공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씨포트지구 에 거대한 배모양의 놀이기구와 스피드 시패드가 있는 놀이터가 생긴다. 6월 15 일에 개장 예정인 이 놀이터의 이름은 "마틴스 파크" (Martins Park)로 2013 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마틴 리처드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마틴 리처드는 놀이터에서 놀기 좋아 하던 8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다. 그의 부모에 따르면 마틴은 동네 놀이터에서 놀면서 스포츠맨 정신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고 한다. 재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강조하는 놀이터를 만들자는 마틴의 부모와 디자이너의 비전에 따라 장애인과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놀이기구, 혁신적인 구조

물, 많은 녹지 공간이 보스턴 어린이 박물관 맞은편의 1에이커의 대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모험심을 충족시킬 거대한 배모양의 놀이기구는 사다리와 같이 어려운 난이도의 기구뿐만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와 같은 쉬운 경로를 마련해 누구나 정상에 올라가 함께 놀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도시 경관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울릴 자연을 닮은 놀이기구에는 통나무미로, 돌 모양 암벽, 작은 동물 조각들, '워터가든' 이라 불리는 스피드 시패드 등이 있다.

시각적인 놀이터 외에도 나무와 꽃이 많은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항구가 내다보이는 고요한 녹지 공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벤치와 작은 자연 산책로 또한 마

련된다. 마틴의 부모는 이 공원이 가족들이 재밌게 즐기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람에 대한 연민과 포용성을 키우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틴스 파크의 개장일인 6월 15일에는 하루 종일 공원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공원이 개장하기 전까지 라이브 웹캠 (<https://www.boston.gov/departments/parks-and-recreation/martins-park>)으로 공원의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Martins Park
Children's Wharf Park, Boston, MA 02210
sun@bostonkorea.com



가장 만족스러운 항공사는?

알래스카 항공, 델타 제치고 고객 만족도 1위

(애틀란타 = 애틀란타 조선일보) 강정민 기자 = 지난 4월 30일 발표된 2019년 고객 만족도 조사(ACSI: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 따르면 고객 만족 지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알래스카 항공으로 밝혀졌다. 공동 2위는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제트 블루가 차지했고 4위에 델타 항공, 5위에 아메리칸 항공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항공편을 이용한 1만 287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알래스카 항공은 항공 부문에서 ACSI 점수 80점 (100점 만점)을 획득하며 전년도 대비 1점이 향상된 성적을 보였다. ACSI 조사 결과만 보면 알래스카 항공과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합병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들은 "알래스카 항공의 노선이 확장되고 운임이 저렴해져 만족한다"고 전했다.

2018년 ACSI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전년

도 보다 낮은 79점을 받아 제트 블루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직원들의 파업과 보잉 737 맥스의 기기결함으로 인한 잦은 결항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시 도착율 1위에 오른 델타 항공은 75점을 기록하며 73점을 받은 아메리칸 항공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 (United Airlines)은 70점을 받아 필드를 차지했지만 전년도 대비 3점이 오른 점수를 받아 진전을 보였다.

이번 ACSI 조사를 보면 항공 업계의 고객 서비스가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밴암버그 ACSI 전무이사는 "항공사들이 62년 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객 서비스는 크게 향상됐으며 타 산업 분야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고 전했다.

kang.elloy@atlantachosun.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해당 1봉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팝/동만,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팝/동만, 영화/성인, YOUTUBE	\$39.99
--	---------	---	---------	--	---------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가족방송) / ETN / 벵쿠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웨그먼스 음식 배달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 앱 통해 음식 주문 가능 메드포드 지점 5월 27일부터 시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웨그먼스에서 올해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웨그먼스 밀스 투고(Wegmans Meals 2GO)' 라는 명칭의 음식 배달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빠르면 이번 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웨그먼스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웨그먼스 밀스 투고' 를 올해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드포드에 위치한 웨그먼스 지점은 5월 27일 주간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네이틱 지점은 7월 24일 주간부터 서비스가 시행된다.

더 많은 웨그먼스 매사추세츠 지점들이 7월이나 8월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욕 로체스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그로스리 체인점인 웨그먼스는 매사추세츠 주에 6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현재 벌링턴, 체스넛힐, 메드포드, 노스보로, 웨스트우드, 네이틱에 지점이 있으며, 특히 작년에 문을 연 네이틱 지점은 2층 규모의 초대형 마켓이다.

웨그먼스는 전통적인 슈퍼마켓의 제품들을 팔면서도 거의 마켓 플레이스를 연상 시키는 음식과 분위기로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웨그먼스 지점에서 신선하면서도 부담 없이 테이크아웃

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웨그먼스가 새롭게 시작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는 실리콘 벨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배달 전문 업체인 도어대시(DoorDash)와의 합작품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웨그먼스 밀스 투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웨그먼스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을 거의 모두 주문할 수 있다. 현재 최소 주문 금액은 20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오전 11:30부터 밤 9시 사이에 주문할 수 있다.

'웨그먼스 밀스 투고' 는 이미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2020년까지 서비스 지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웨그먼스는 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99개의 지점이 영업 중이다.

jsi@bostonkorea.com



작년에 문을 연 네이틱 지점은 2층 규모의 초대형 마켓이다



MIT 돔 캡틴아메리카 방패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IT의 학생그룹이 어벤져스 영화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그레이트 돔을 캡틴아메리카 방패로 27일 변경시켰다.

MIT의 전통적 장난기 섞인 이슈 제기 방식인 핵(Hack)의 일환으로 자신들을 "해커" 라고 칭하는 학생그룹은 보스톤글로브에 자신들이 돔을 캡틴아메리카 방패로 만든 것을 28일 일요일 알리고 취지를 설명했다.

MIT에서 사회 문화적 행사와 역사적 이슈 혹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짓궂은 장난의 형태로 풍자하여 전달하는 행동을 '핵(Hack)' 이라 부른다. 이 "해커" 들은 자신들이 어벤져스 시리즈

와 함께 성장해 온 세대라며 방패를 통해 어벤져스 시리즈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번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블의 "어벤져스:엔드게임" 은 영화 과거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 주말동안 12억달러의 티켓 판매고를 올렸다.

MIT 장난그룹들은 이번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MIT 학생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그레이트 돔을 변형시켜왔다. 2009년에는 MBTA 레드라인 열차가 돔위에 놓이기도 했고 20년 전에는 스타워즈의 R2D2처럼 변형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가정의달 최고의 선물 정관장 특별 프로모션

"보스톤 매장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정관장

정관장



홍삼의 6대 효능

- ▶ 면역력 증진
- ▶ 피로개선
- ▶ 불소산 손상억제를 통한 활력유지
- ▶ 기억력개선
- ▶ 항산화에 도움
- ▶ 정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0g** 증정



Event 2

3+1

화애락 분, 진 구입시
10포 추가증정



Event 3

홍삼톤 골드, 마일드, 홍천웅 구입시
홍삼톤 마일드 **10포** 증정



Event 4



홍삼추출액 구입시
5포 추가 증정

Event 5

3+1

홍이장군, 아이패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동인비 제품
15%~20% **SALE**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A주 검사들, 법원서 이민 단속 반대

법원이 무서운 장소가 되고 있다 검사들 연방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검사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관들이 매사추세츠 주의 법원 주변을 지키고 있다가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멈추어 달라는 것이다.

서퍽카운티와 미들섹스카운티의 검사장은 다른 시민 단체, 법집행 기관과 함께 지난 달 29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불법 체류자로 의심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민 단속관들이 법원 주변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무서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혹은 증인들이 필요에 의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민 단속관들에게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 출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들섹스카운티의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은 “우리가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끊임없이 행정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 단속관이 주 법원 근처에서 대기를 하다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사추세츠 주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법원 판사와 법원 직원이 이민 단속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 남자를 법원 뒷문으로



이민 단속관들이 매사추세츠 주의 법원 주변을 지키고 있다가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멈추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몰래 내보낸 일이 있었다. 연방 검찰관은 이들을 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후 매사추세츠 주의 검사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자 연방 정부의 체포 영장이 없이는 이민 단속관들이 뉴욕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민자들의 체포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윈 리조트는 예정대로 오는 6월에 카지노가 포함된 럭셔리 리조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윈 리조트 \$35M 벌금 라이선스는 유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에버릿에 카지노를 오픈할 예정인 윈 리조트에 3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회사의 창립자인 스티브 윈의 성추문과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카지노 라이선스는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

카지노 사업을 관장하는 매사추세츠 게이밍 커미션에서는 수주간 의 논의 끝에 지난 30일, 윈 리조트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 대한 벌금과 함께 윈 리조트의 매튜

매독스 CEO도 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윈 리조트는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윈 리조트의 설립자인 스티브 윈은 자신의 성추문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성추문이 불거진 작년에 CEO에서 사퇴했다.

윈 리조트는 벌금을 물더라도 카지노 라이선스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는 6월에 카지노가 포함된 럭셔리 리조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mlee@mbamortgageco.com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영국 가디언, 20년만에 적자행진 탈출했다

GNM 3년전 적자 5700만파운드 → 흑자 80만파운드 온라인 트래픽 · 구독 및 기부 확대 · 비용절감 '주효'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영국가디언이 20년만에 적자 행진을 끝내고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3년 전 세웠던 수익성 제고 노력이 결실을 봤다. 온라인 트래픽이 크게 늘었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한데다 기부에 나선 독자들이 많아졌다.

1일 가디언에 따르면 가디언, 그리고 일요일에만 나오는 옵서버를 발간하는 가디언 뉴스앤미디어(Guardian News & Media·GNM)는 지난 1년(2018월 4월~2019년 3월)간 매출 2억2300만파운드, 영업이익 80만파운드(147만 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3% 늘었다.

수입의 55%는 디지털 부문에서 나오는데 이는 다른 영국 신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지면 광고 매출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디지털 혁신'의 선두 주자로 꼽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GMG는 3년 전만 해도 5700만파운드에 달하는 적자를 냈었다.

당시 유료 구독자수는 12만명이었는데 올해 3월말 기준 65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36만명은 끊지 않고 연속해서 구독을 하는 독자이며 29만명은 종이 신문과 디지털 모두를 구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페이지뷰도 3년 전인 2016년 1월 7억9000만건이었던 것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3억5000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디언은 지난 3년간 20%의 비용을



캐서린 바이너 가디언 편집국장

절감했다. 해외 독자도 늘어 가디언 미국 지사와 호주 지사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독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늘었다.

지난 2015년 가디언 역사 194년만에 처음으로 선임된 여성 편집국장 캐서린 바이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시기에 질적으로 우수하고 독립적인 보도와 논평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독자들의 지원, 그리고 가디언 직원들의 노력과 재능 덕분에 중요한 재정적 이정표에 도달했고 이제 (존립이) 지속가능한 위치에 세계 뒤편 시대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뛰어난 저널리즘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3년 후인 오는 2022년까지 200만명의 유료 회원과 기부자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소유주이지만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는 스코트 트러스트 기금(Scott Trust Endowment)이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스코트 트러스트 기금은 연간 2500만~3000만 파운드 규모의 순익을 내면서 가디언 운영을 도왔다. 계속된 적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가디언이 광고주 등 경제 권력과 상업자본, 또한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리버럴 저널리즘' '독립 저널리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엔 스코트 트러스트의 존재가 큰 기반이 됐다. s914@news1.kr

바이든, 미 유권자 지지 급등 트럼프 막을 선택

CNN 여론조사... "트럼프 막기 위한 선택이 중요" 바이든 "물러가 못 다한 조사 막는다면 탄핵밖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야당 성향 유권자로부터 받는 지지율이 11% 포인트(p) 올랐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 가운데 39%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봤다. 대선 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3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야권 지지율은 28%였다.

당내 2위 주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한참 뒤처진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야권 성향 응답자들은 또 대선에서 '대통령에 적합한 경험을 지닌 후보자'(31%)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는 후보자'(46%)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민주당 후보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뿐이 아니었다. 동성애자 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전월 대비 6%p 상승한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8%)과 베토 오로코 전 텍사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주 하원의원(6%)을 앞지르는 수치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현재 선두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응답자 가운데 64%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번 CNN 여론조사에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1007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유선 전화로는 358명이, 휴대전화로는 649명이 응답했다. 95% 신뢰구간에서 오차범위는 ±3%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풀지 못한 실마리를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백악관과 집권 공화당이 막아선다면 의회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30일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아직 물러 특검이 풀지 못한 7-8가지 일이 남아있다"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를 막는다면 유일한 헌법적인 수단(탄핵)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asta@news.kr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턴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턴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연준 금리 동결, 파월 정치적 압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금리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 2.25~2.50%로 동결 연준 "향후 인상 결정에 인내심 갖겠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연방준비제도(Fed)가 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책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가졌다. 최근에 서로 엇갈리는 지표들이 발표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 트윗까지 내놓은 상태라 연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2.25~2.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우리의 정책기준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면서 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경제가 rocket처럼 상승할 것"이라며 연준을 압박했다.

이번 연준 성명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기자 중의 한 명이 물가상승률을 연준 목표치에 가까이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한 사례가 없었냐고 묻자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이 이 시점의 정책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금리 동결이 무리가 없는 적절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다"며 "일정 부분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은 과도기적이거나 특이해 보이는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 "정책 위원들이 물가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사항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때 감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정책 성명서에서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 접수된 정보는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제활동 둔화를 지적한 이전의 성명에서 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가계 소비 증가와 기업 고정

투자의 증가세가 1분기에 둔화되었다"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식품과 에너지 이외의 품목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2%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높게 평가했지만 글로벌 경제의 악화를 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글로벌 경제와 재정적 발전, 그리고 반응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향후 조정 결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성명 어디에도 연준이 머지않아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다만 연준은 시중은행의 초과 보유분에 연준이 지불하는 금리는 기존의 2.40%에서 2.35%로 하향했다.

ungaungae@news.kr



미, 중 2000억 달러 관세 즉각 철회 합의

500억 달러 관세는 차기 정부에서 처리기로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과정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보복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1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양측은 미국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즉각 철회하고 나머지 관세는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데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효한 360억 달러 규모 1차 대중 관세와 8월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 2차 관세에 이은 3차 관세 조치였다.

미국은 1,2차 관세 부과 당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품목에 대해 집중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3차 관세는 중국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

했다. 따라서 양국은 3차 관세는 즉각 취소하는데 합의했지만 미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차, 2차 관세 해제 시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 "1차, 2차 관세 해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또는 새로운 대통령이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양측이 다음 주 후반쯤 합의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NBC는 오는 10일 합의안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오는 8일 워싱턴을 찾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중은 10일 무역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CNBC는 예상했다.

sinopark@news1.kr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DRAIN & PLUMBING

확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반도체 · 디스플레이 쇼크...삼성전자 최악의 1분기

반도체사업 영업이익 4.1조원으로 3개월만에 반토막

(서울=뉴스1) 장은지,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하로 떨어지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동반 쇼크에 빠졌다.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감소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대폭 감소한 겹 악재다. 지난 2016년 3분기(5조2000억원) 이후 10분기만에 최저 실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 실적을 쓴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17조570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도 전년동기대비 반토막이 났다.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 3분기 이후 6개월만에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부진은 시장 예상보다 심각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끈 메모리 반도체의 경기둔화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적자가 겹치며 삼성전자 실적을 시장 기대치 이하로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30일 연결 기준 매출 52조4000억원, 영업이익 6조2000억원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60.1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1.9%로 직전분기 18%보다 약 6%p 낮아졌다. 전년동기 영업이익률인 25.8%와 비교하면 13.9%p 후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낸드플래시에 이어 D램까지 가격하락이 이어지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주력 고객사인 미

국 '아마존웹서비스'에 공급한 서버D램에서 불량 발생해 리콜하는 악재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중국발 LCD(액정표시장치) 공급과잉으로 삼성디스플레이마저 수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최악의 1분기를 보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중심으로 수요 약세와 판가 하락 영향을 받았다"며 "부품 사업은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수요 약세가 지속되며 메모리 가격도 하락해 반도체 사업 전체 실적은 하락했으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수요에 적극 대응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반도체 사업은 매출 14조4700억원, 영업이익 4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7조7700억원이었던 직전분기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11조5500억원이었던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1년만에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었다. 50%를 넘던 반도체사업 영업이익률은 28.5%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4조원을 겨우 넘긴 것은 3조원대였던 2016년 3분기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함께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수요 약세를 보였다"며 "그러나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고용량 낸드, D램 메모리 수요와 서버 업체들이 HDD(Hard Disk Drive)를 SSD(Solid State Drive)로 전환하는 낸드 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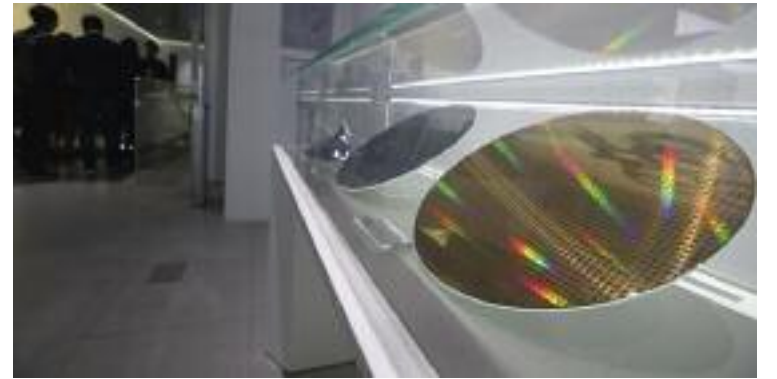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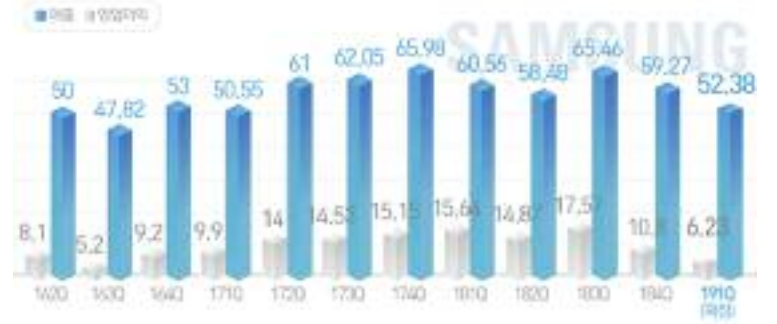
수요는 견조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제품인 서버D램 마저 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 '큰손인 데이터센터 등 대형 고객사들이 계약을 미뤄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는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사업의 낮은 가동률과 판가 하락,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패널 판가 하락과 판매 감소로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매출 6조1200억원, 영업손실은 5600억원에 달한다. 2분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분기 계절적 비수기와 OLED 주요 거래선의 수요 감소,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다"며 "2분기에는 중소형 패널은 리지드(Rigid) 제품 판매 확대가 기대되나, 플렉시블 OLED 수요 약세와 대형 제품의 공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세트 사업은 IM 부분의 경우, 갤럭시 S10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시장의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은 하락했다. 1분기 IM부문 매출은 27조2000억원, 영업이익 2조27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무선 사업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10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해 전분기 대비 매출이 크게 개선됐으나, 신제품 고사양화 트렌드와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 중저가 라인업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영향으로 수익 개선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CE 부문 1분기 매출은 10조400억원, 영업이익 5400억원을 올렸다. 전년동기

삼성전자분기별 실적비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2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4층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약 2배로 늘었다. TV 사업은 비수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감소했으나, QLED-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2분기는 시장 수요가 소폭 감소하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부재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 감소가 예상되나, 8K 등 신모델 본격 판매와 함께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모리반도체 저점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전망은 부정적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부품 사업은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는 일부 응용처의 수요 회복세가 시작되나 가격 하락세 지속과 비수기 영향으로 업

황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부품 사업은 메모리 고용량 제품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 환경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는 AP, CIS(이미지센서) 수요가 지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1분기 집행한 시설투자는 4조5000억원으로 사업별로는 반도체 3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3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투자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집행할 방침"이라며 "메모리 분야는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인프라 투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eecit@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작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시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과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술과 부동하는 비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시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기록이나 이체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체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제휴관점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축삭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관병원(독립문역)
경남치안병원(학동역) / 장본위병(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당역)



미국 의료관광사업자
김수남
대표이사
미국, 캐나다 의료관광(Consult for Travel)
1-855-DD-HURAM(1-855-366-8726)
Tel : 373-4147-4842
카카오톡 : 010-5489-30800D : huramkorea@naver.com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휴스름 인사
보스톤지부 917-645-1766
본점소재

보스톤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법륜스님 영상강좌

- 교육기간: 1년과정 (주 1회 2시간)
- 대상: 만 19세이상 (학력제한없음)

수행법회

- 수요일법회: 7 PM
- 일요일법회: 10 AM

명상수련

- 일요일법회 후: 2 PM (월 1회 넷째 일요일)

문의 **T. (617) 977-4227**
boston@jungto.org
 574 Boston Rd, #16A
 Billerica, MA 01821



정토회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추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삼바 분식회계 자회사 임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염려

증거 위조 · 인멸 등 혐의...검찰, 뒷선 수사 탄력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는 등 구속사유 인정돼"

(서울=뉴스1) 이유지, 서미선 기자 = 삼삼바이오로직스(이하 삼삼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삼바이오의 자회사 삼삼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임직원 2명이 29일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삼삼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밤 10시29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

경호)는 지난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삼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삼바이오 회계 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삼바이오가 2015년 삼삼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삼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뒷선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28일)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이자 옛 미래전략실 출신 상무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증거인멸 지휘 여부를 추궁하며 뒷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준비를 해 왔다.



인천 연수구 삼삼바이오로직스 본사

금융당국의 삼삼바이오에 대한 특별 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 A씨를 비롯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삼삼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삼삼에피스 직원들

을 불러모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뒷선 관여 여부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씨는 관련 자료 인멸 작업에 A씨가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mith@news1.kr

경찰, 의붓딸 살해 계부 수사에 프로파일러 투입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계부가 중학생의 붓팔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31)에 대한 추가조사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프로파일러는 A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게 된다.

경찰은 B양(13)의 친모인 C씨(39)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해를 입을 것 같다는 취지로 "무서웠다"고 말할 것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

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 C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C씨가 A씨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이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살인 혐의와 시신을 유기하

는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unwon@news1.kr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롤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3rd - MAY 9th, 2019

HUNAN BRAISED PORK BELLY

COOK A TIME-HONORED HUNAN RECIPE IN ONE HOUR!
TREAT YOUR FAMILY WITH THIS TRADITIONAL CHINESE DISH AT HOME NOW.
중국식 전통요리, 후난식 돼지고기 조림을 단 한시간만에 만들 수 있는 주간단 레시피를 H마트가 공개합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공식적으로 성공가능성 입증받은 자영업자 위치 CONTACT: ma@hmart.com



Follow us @hmartofficial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2.99</p>	<p>Korean 3Pack Singo Pear 한국산 3팩 신고배 \$7.99</p>	<p>Red Globe Grape 레드 글로브 포도 \$1.79</p>	<p>Chestnut 밤 \$2.99</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79</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79</p>	<p>Ginger 생강 \$1.79</p>	<p>Packed Garlic 택마늘 2\$3</p>	<p>Gobo 우엉 \$1.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Silken/Firm 14-16oz./pkgs \$0.99</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복살 \$4.99</p>	<p>Beef Eye Round Chunk 강조림용 흉두께 \$6.99</p>	<p>TONGTONGBAY Jiri Anchovy 통통배 저리멸치 \$8.99</p>	<p>TONGTONGBAY Pollock Fillet 통통배 동태전갈 \$4.99</p>
<p>Smoked Duck 훈지 오리 \$14.99</p>	<p>Frozen Whole Duck 냉동 봉오리 \$2.99</p>	<p>TONGTONGBAY Raw Peeled Shrimp 통통배 간새우 \$10.99</p>	<p>TONGTONGBAY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자숙 홍합살 2\$6</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사브사브용 냉동 차돌박이 \$8.99</p>	<p>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4.99</p>	<p>Head-on Shrimp 머리 새우 \$5.99</p>	<p>Live Korean Fluke 제주 활광어 \$13.99</p>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DONGSUN Miso Coffee \$12.99</p>	<p>ARIZONA FARM Honey Powder \$2\$5</p>	<p>DONGWON Shrimp Cutlets \$5.99</p>	<p>PULMUONE Kalbs Fried Udon Noodle \$3.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9.99</p>	<p>HAIUREUM Premium Roasted Seaweed \$2.99</p>	<p>CHUNGJUNGONE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14.99</p>	<p>NONGHYUP Asian Apricot Tea \$18.99</p>			
<p>HAIUREUM GOMPYO Wheat Flour \$3.99</p>	<p>DONGWON Tuna Light Standard \$7.99</p>	<p>CHUNGJUNGONE Luncheon Meat \$2.99</p>	<p>THE HOUSE Dumplings \$5.99</p>	<p>CALBEE Fruit & Granola \$6.99</p>	<p>NESTLE KI Kit Malted Chocolate \$4.99</p>	<p>HAIUREUM Banana Flavored Milk Drink \$3.99</p>	<p>KOHLS Stainless Steel Electric Kettle \$27.99</p>	<p>Disposable Roll Type Scrubber Bristles \$10.99</p>	<p>LAPOTHICELL Facial Cream \$19.99</p>	<p>LAPOTHICELL Daily Essential \$21.99</p>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2019. 6. 1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우선시 명사는
2019. 6. 29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명사에게 접수하여 Email로 제공받으세요.
장소 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Wedgefield Park, NJ 07060)
접수기간 2019년 4월 12일(금) -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접수

JINGA SIDE DISHES

신가 반찬
JINGA SIDE DISHES
\$4.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8 / TEL: 781-221-4570 (STORE HOURS: Sat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정치권 냉기류, 정국 시계제로

여,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에도 대화 재개 가능 전망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7년 만에 동물국회를 소환한 패스트트랙 정국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다만 한동안 패스트트랙 여파로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팽팽했던 긴장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이 기간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충돌 과정 속에 반발과 조롱은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상생해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싸움의 상대'로 여겼다.

상호 고소·고발전도 역대 최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할 기세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 정의당 역시 한국당 국회의원 40명과 보좌관 2명 등을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사법조치에 나섰다. 한국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는 순간까지도 여야는 충돌을 거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회의장은 고성이나 난무했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면서 정국은 냉기류가 감싸고 있다. 당장 여야는 한동안 낯선 공방전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접거의 불법성을 부각

시키는데 집중하고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꼼수로 입법부를 무너뜨렸다고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한동안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민생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쟁에 그대로 묻혀버리게 된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에는 강원 산불 피해 대책을 위한 재원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여야 간 시급한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지만 언제 논의를 시작될지 기약도 없다.

게다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의도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대와의 대화가 아닌 강공 입장을 이어가야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탓이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섞이면서 정국은 한동안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여야의 대치 상태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가 재출발하게 되면서 여야 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추경안도 언제까지 외면할 수도 없다. 여야 모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

따라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내달 8일 이후에는 대화가 조금씩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goodday@news1.kr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혁위 위원들을 막아내고 있다

정개혁위 지역구 225 · 비례 75석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최장 330일 뒤 본회의 표결

(서울=뉴스1) 정연주, 전형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정개혁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본청 정무위 회의실(604호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표결은 정개혁위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해 '가' 12명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애초 정개혁위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위원이 12명으로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을 불사하는 충돌이 일었고, 사개혁위가 공수처 관련 바른미래당측 의원의 이견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정개혁위도 잠정 중단됐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관련 바른미래당의 별도 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사개·정개혁위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날도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개·정개혁위 회의장에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지난 26일 여야 4당은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했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하는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범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우선 특위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다. 이때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내에 해당 논의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선거제 개편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안건 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jjy@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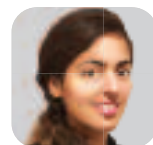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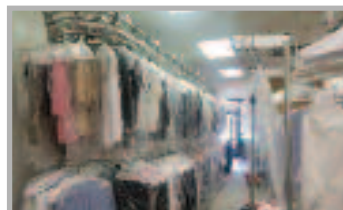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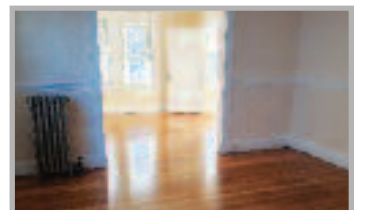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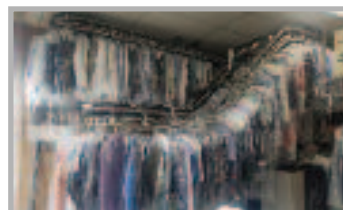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THE FACE SHOP
THE FACE SHOP 입점

LG 화장품
\$75 이상 구입시 (쿠폰 지참)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H마트 안)

**예쁜
우산
증정**
Exp. Date:
May. 1-12, 2019

**HAPPY
Mother's
Day**

**COCO화장품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간이든느릴수록
그녀의 차가워진
피부를
어떻게 보살피고
관리할지 고민하셨다면
이제 고민을 없애주세요
COCO화장품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40111 주

<p>후 기품세트 F&P Grapefruit 바디 듀오 세트, 진유3종 여행용 세트 증정</p>  <p>\$220 Plus Tax \$80 Value</p>	<p>후 화현 2종세트 화현 6종 여행세트 증정</p>  <p>\$220 Plus Tax \$137 Value</p>
<p>후 비첩 자생에센스 2종세트 화율2종 여행세트, 진유3종 여행용 세트 증정</p>  <p>\$185 Plus Tax \$125 Value</p>	<p>후 화율2종세트 공진향 폼클렌징 기획세트, 화율 4종 여행용 세트 증정</p>  <p>\$300 Plus Tax \$245 Value</p>
<p>오위 더 퍼스트 4종 세트 더 퍼스트 골드 앰플 20ml 증정</p>  <p>\$280 Plus Tax \$175 Value</p>	<p>오위 프라임 어드밴서 앰플 2종 세트 F&P ALO Ocean Flower 바디 듀오 증정</p>  <p>\$130 Plus Tax \$20 Value</p>
<p>오위 에이지 리커버리 4종세트 에이지리커버리 5종 여행세트, 스트라이프 파우치 증정</p>  <p>\$170 Plus Tax \$80 Value</p>	<p>오위 미라클 4종세트 미라클 크림 20ml, 미라클 앰플 마스크 2장 증정</p>  <p>\$140 Plus Tax \$50 Value</p>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H마트 안)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봄철 나들이 가고 싶은데... 요실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 부끄러움으로 치료 미룬다면...여성 건강에 악영향
-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나 주의 필요



이번 주 휴람에서는 40대이후의 여성이라면 누구 나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환인 요실금에 대해 휴람 네트워크 세란병원의 도움을 받아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봄철 큰 일교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피어난 꽃들이 외출을 부추기는 요즘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꽃을 핑계삼아 외출하려는 나들이족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최악의 나들이 시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요실금으로 인해 외출이 꺼려지다 못해 두렵기까지한 이들도 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유출되는 질환을 말한다. 추운 겨울 뿐만 아니라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는 환절기에는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땀 배출량이 줄어들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방광을 강하게 자극하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요실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실금은 40대 이상의 중년 및 고령의 인구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요실금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만 7610명이었으며, 이중 50대 환자가

34.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4%, 60대가 20.7%로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요실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골반 근육이 손상되어 요도를 조이는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방광이 복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요실금 증상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요실금 증상 자체로만 보면 질환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수치심으로 인해 자존감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인식하기 쉽다.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요실금 초기에 병원을 찾아 빠르게 치료 받기 보다는 어떻게든 참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질환의 방치는 증상의 악화와 더불어 여성건강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출되는 소변으로 위생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기능저하 및 여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실금은 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질환의 초기라면 골반 근육 훈련, 방광 훈련, 수분 섭취 조절 등의 행동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행동요법으로 방광의 용적을

늘려 배뇨 조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를 들 수 있다. 방광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방광을 이완시켜 요실금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수술을 통해 신경조절, 방광의 과팽창, 방광확대성형술, 중부요도슬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휴람네트워크 세란병원 산부인과 박상원 과장은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운동, 스트레스로 인해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요실금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 만큼 부끄러운 마음에 감추기보다는 초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질환의 조기 치료는 물론 여성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이 요실금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데, 화장실 도착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온다거나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기 어렵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요실금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진료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요실금"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진료예약-치료-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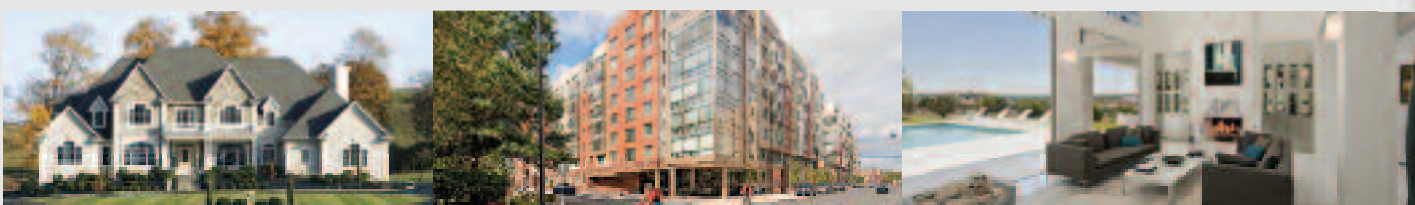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ASKING \$480,000</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NH 대형 물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ASKING \$15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4일 귀국뒤 대책논의...거취 주목

예정보다 닷새 일찍 귀국...대검 지휘부 회동해 논의할듯 임기 두달여 남기고 '사퇴카드' 만지작...추가 입장표명 전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조기귀국한 뒤 곧바로 향후 대책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문 총장이 사의를 표할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추가 입장표명 등으로 대응해갈지 등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출국해 당초 오는 9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문 총장은 예정대었던 에콰도르 대검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돌연 출장을 중단한 배경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한 문 총장의 공개 반대표명 뒤 정치권에서 '검찰 수장의 기득권 지키기' 등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 고려된 면이 있어 보인다.

문 총장은 전날(1일) 대검 대변인실

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해외순방 중 강도높은 반대를 표한 것이다.

또 그는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에 '검찰 조직논리 반영' '신중치 못한 공개 반발'이란 취지로 일제히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사안이라 문 총장이 낸 메시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불만을 보인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의 표명을 염두에 두고 수위높은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문 총장은 이처럼 자신이 밝힌 입장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귀국하는대로 대검 고위 간부 등과 신속처리안건에 관한 검찰 대응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같은 조정안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에 독직폭행 등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마약사건처럼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이의제기할 주체가 없어 은폐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추가된데도 검찰 내부 반발이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재판구조에서 어느 정도 정착돼있는데 갑자기 바뀌면(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거로 못쓰니 재판이 굉장히 지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상녹화 등을 이를 대체할 증거로 인정해줄건지 등 대안 논의가 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안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며 문 총장의 거취 문제도 테이

블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문 총장 출국 전 연일 열린 대검 간부 회의에선 사표제출 대신 법안의 문제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만료까지 두달여가 남은 가운데 문 총장이 '사퇴카드'를 통해 정부여당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직내 불만을 추스르는 방안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 검찰총장후보 추천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smith@news1.kr

검찰내부 수사권 조정안에 분노...문무일 거취엔 갑론을박

"檢권한만 축소, 고민 부족"..."檢 부족함 반성해야" 文 진퇴 두고 "누군가는 옷벗어야"vs"사표 무의미"

(서울=뉴스1) 서미선, 구교은, 손인해 기자, 이지우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이 전날(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엔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검사들 댓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검 연구관은 전날 '수사권 조정 문제점'이란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A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법자인 검찰이 동의 못하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표결해서야 되겠냐"며 "수사권 조정은 절대 검사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이 포기하는 순간지는 거고, 일치해 끝까지 가야 한다"며 "(대검이) 전국 검사들

의견을 잘 끌어내 내부적으로라도 논의를 계속해 어느 한쪽(경찰)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하진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검의 B 간부는 "조정안 내용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단게 100%의 검사들 이야기"라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말 필요한 사법통제를 없애자고 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검 관계자도 "문 총장 의견표명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논의한 부분에 분노 의사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며 "계속 의견을 개진해 독소조항들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반대보다 자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은정 청주지검 총주지청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에 시간이 없던 게 아닌데,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며 "상황에 대한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구성원으로 답답하고 서글프다"고 적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며 문 총장 거취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해선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 사표가 답이 아니라 반박이 동시에 나온다.

A 부장검사는 2011년 7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물러난 것을 들며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총장 쫓아내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한다"며 "총장 사표가 종이조각도 아니고, 그걸(사의표명) 잘 해서 조직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B 간부는 "총장이 관두면 조정안의 문제를 봐달라는 건 묻히고 누가 총장이 되느냐로 프레임이 바뀐다"며 "사퇴는 방법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른 대검 관계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총장이 총대를 매고 전체 조직 의견을 취합해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문 총장이 점잖게 있어 이 지경이 됐다. 더 강하게 반발했어야 한다"면서도 "사퇴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수사권 조정안을 받는 조건으로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 질까 겁나는데, 적어도 다음 총장이 (그렇게) 못하게 이번 총장이 할말 다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검찰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대검 측은 "아직 답변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smith@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웹페이지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공정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	978-407-7554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주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도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617-792-8780
그리핀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5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콘신터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민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퍼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뉴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런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1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엘리닉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아이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Paul of Tarbes Parish of Boston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에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무약정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韓 최초 고대 문명 다룬 '아스달연대기'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아스달 연대기'가 장엄한 서사의 기운이 휘감은, 강렬한 연출감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6월1일 처음 방송될 tvN 새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극본 김영현, 박상연/연출 김원석)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 이야기를 담는다.

이와 관련 30일 대한민국 최초로 고대문명을 담아낸 '아스달 연대기'의 웅장한 포스터를 하나로 응축시킨 '티저 포스터'가 첫선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티저 포스터에는 태고의 도시 '아스달'의 전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신비롭게 표현돼,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몽환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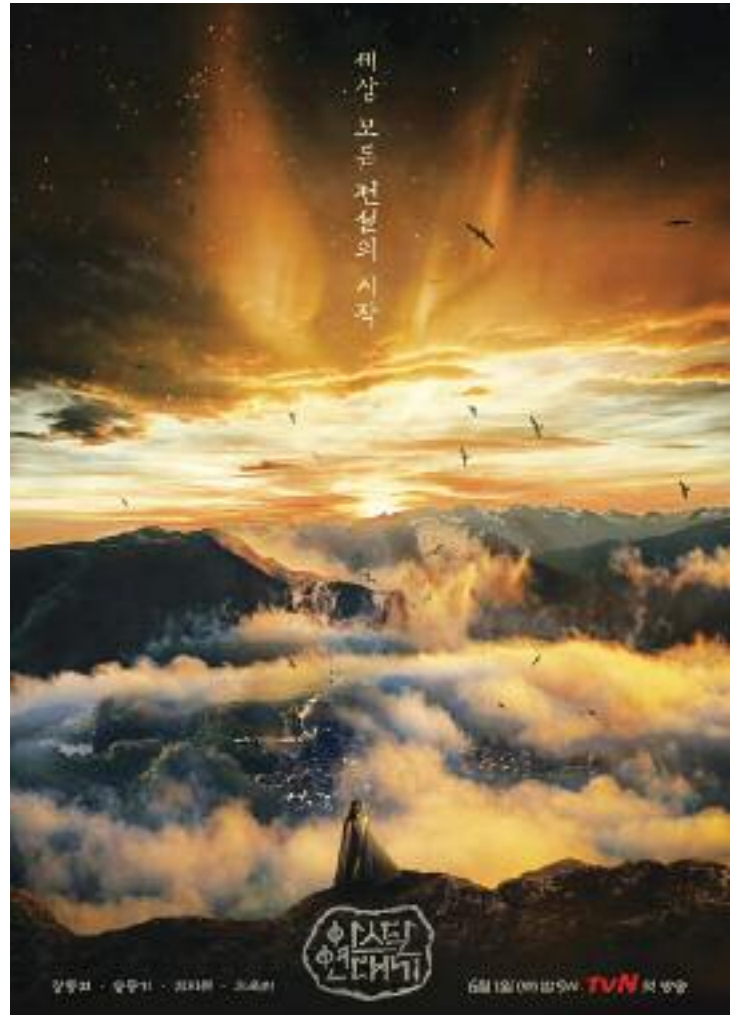
무엇보다 붉은 태양과 광대한 산맥을 둘러싼 높이를 가능할 수 없는 자욱한 안개, 힘찬 날갯짓을 이어가는 새들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뤄내면서 웅장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여기에 거대한 산 정상에서 태고의 도시 '아스달'을 내려 보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비추지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몰입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붉은빛 하늘을 가로질러 '세상 모든 전설의 시작'이라는 짙막한 문구가 더해지면서 지긋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영웅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제껏 본 적

없던 고대 인류 최초, 태고의 이야기가 담긴 '아스달 연대기'가 풀어낼 스토리는 무엇일지, 가슴 벅찬 기대감을 선사하고 있다.

제작진은 "'아스달 연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태고의 도시 '아스달'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고대 문명과 고대 인류에 대한 삶과 운명을 그려낸 '아스달 연대기'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스달 연대기'는 '자백' 후속으로 오는 6월1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된다. 대한민국 최초로 고대문명시기를 다루는 '아스달 연대기'는 장대한 서사와 웅장한 스케일이 담긴 대서사시로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해왔다. 이에 서사의 큰 변화를 중심으로 Part 1, 2, 3로 구성해 방영할 예정이다. 'Part 1 예언의 아이들'과 'Part 2 뒤집히는 하늘, 일어나는 땅'이란 부제로 각 6회씩 12회 분량으로 방송된다. 이후 타곤, 은섬, 탄야, 태알하 등 주인공들이 운명적인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제작상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Part 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을 하반기 내에 방영할 예정이다. 특히 Part 3는 Part 1과 Part 2의 서사와 세계관 및



캐릭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최대한 높인 후 방영돼 더 큰 극적 재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스달 연대기'를 2019년도 내내 즐길 수 있게 돼 관심을 모은다. seunga@news1.kr

5월 5일 - 5월 1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p> <p>●운수: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금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남보다 얼마나 발 빠른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소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p> <p>●운수:그 어느 때보다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되면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애정: 혼자 공경되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함께 의논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8,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범띠 일을 분담해야</p> <p>●운수: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하세요. ●금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에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애정: 믿음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p>
<p>토끼띠 일생일대의 기회가</p> <p>●운수: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잘만 잡으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수입이 증가하니 얼굴에 혈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애정: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다 바라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5, 10일 길일, 9, 11일 주의.</p>	<p>용띠 기쁨을 주는</p> <p>●운수:움지에서 양지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금전: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대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애정: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뱀띠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p> <p>●운수:세상살이가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0일 길일, 5, 11일 주의.</p>
<p>말띠 큰 것을 챙기도록</p> <p>●운수: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해야 합니다. ●금전: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챙기도록 하세요. ●애정: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10일 길일, 6, 7일 주의.</p>	<p>양띠 이리저리 계산하게</p> <p>●운수: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금전:돈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니 이리저리 계산하게 됩니다. ●애정: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점점 무뎠어지니 마련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9일 길일, 7, 11일 주의.</p>	<p>원숭이띠 지출을 신경 써서</p> <p>●운수: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차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1일 길일, 5, 8일 주의.</p>
<p>닭띠 해결책을 찾고</p> <p>●운수:여러 날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한숨 돌리게 되니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금전: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개띠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p> <p>●운수:다소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있을 것입니다. ●금전: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푼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인 것입니다. ●애정:진실을 알고 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돼지띠 말수를 줄여야</p> <p>●운수: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애정: 말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연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플리마켓 보조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863-6208

벨몬트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60-0171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작업실', 실제 커플 탄생한 음악+연애 예능 어떨까

(서울=뉴스1스타) 윤희정 기자 = tvN '작업실'이 1일 오후 11시 첫 방송을 앞두고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공개해 이목을 끈다.

tvN '작업실'은 10명의 청춘 남녀 뮤지션들이 함께 생활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음악으로 교감하고 설렘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뮤지션들의 음악과 사랑, 청춘 이야기가 올봄 색다른 두근거림을 선사할 예정. 고성민, 스탈라장, 아이디, 장재인, 차희, 남태현, 답사위, 빅윈, 이우, 최낙타가 남녀 뮤지션으로 출연하며 신동엽, 김희철, 제아, 주이가 패널로 출연해 '작업실' 특유의 설렘과 재미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먼저 '작업실'에서는 그동안 궁금중의 대상이었던 뮤지션들의 음악 작업 과정이 생생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 래퍼, DJ, 프로듀서 등 다양



한 배경의 출연진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개성 넘치는 음악 작업이 그려지며 흥미진진함을 선사할 전망이다.

실제로 남태현은 출연 계기에 대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다"고 밝혔고, 최낙타는 "늘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음악 작업을 하면서 자극을 받을 기회가 적

어지던 차에 '작업실'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한 바 있어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작업실'에는 기존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미션도 없고 개별 인터뷰도 없다. 이렇게 제작진의 개입이 최소화된 환경과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한 뮤지션들이 만나자 그러면 연애 리얼

리티보다 훨씬 더 리얼한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작업실' 연출을 맡은 강궁 PD는 "작업실'에는 아시다시피 음악 작업을 하는 곳과 로맨스를 키워가는 곳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청춘남녀들이 함께 지내면서 만드는 우정과 사랑,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ichi@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전참시' 측 "박성광·임송 매니저 하차...5월4일 마지막 방송"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방송인 박성광과 임송 매니저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하차한다.

'전지적 참견 시점' 관계자는 30일 뉴스1에 "박성광과 임송 매니저가 하차한다"며 "이번주(5월4일) 스튜디오 방송분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박성광은 임송 매니저가 퇴사를 결정하면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차하게 됐다. 두 사

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스타와 매니저로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임송 매니저의 퇴사와 관련해 박성광 소속사 SM C&C 측은 "그 동안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아왔던 임송 매니저가 4월 말일자로 당사를 퇴사하게 됐다"며 "당사는 꿈을 향해 도전하려는 임송 매니저의 열정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aluemchang@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仁 (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仁慈)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仁慈에 거하면 그仁慈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
 Consider therefore the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sternness to those who fell, but kindness to you, provided that you continue in his kindness. Otherwise, you also will be cut off.
 - 로마서 11:22.

이웃 일본이 1일 나루히토(德人: 덕인) 일왕(日王)의 즉위로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령화)' 시대를 열었다.

나루히토 일왕(日王)은 즉위 소감에서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1960년에 출생, 전쟁을 겪지 않은 첫 일왕(日王)인 만큼 과거사를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를 바라고 싶다.

이웃 일본의 새 시대 개막을 축하해야 하는 한국은 축전(祝電)이 어색할 만큼 두 나라 수교 이래 최악(最惡)이다.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 위안부합의 파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 등이 겹쳐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외교(外交), 안보(安保), 경제(經濟) 어느 부문에도 성한 곳이 없다.

만약 강제징용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일본정부가 보복에 나서면 양국관계는 엉망일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선 관세, 송금, 비자 제한 등등 보복조치가 거론되기도... 양국간 교위인적

교류(高位人的交流)는 끊긴 상태. 방치할 일인가?

5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지금 동북아는 '신(新) 합종연횡'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핵(核)포기' 기만술을 쓰던 김정은(북한)은 하노이 미·북 회담이 깨지자 러시아로 달려가 푸틴을 만나는 등 과거의 북·중·러 공조를 부활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도 여기에 화답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4-6월 석달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번 만나 미·일 동맹 강화조정을 시도한다.

이토록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교는 북한만 쳐다보는 대북(對北) 일변도로만 가면서도 북한은 불려도 대답조차 없고, 한·미 단독 정상회담은 사실상 '2분'에 그쳤다.

한편 270분 이상 대화가 계속된 미·일(美·日) 정상회담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상징적 존재라지만 일왕(日王)은 일본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갖는다.

새 일왕 즉위가 한·일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비결의 열쇠가 仁(인)! 새 일본왕의 이름이 德人(덕인-일본음 나루히토), 한국 대통령 文在仁(문재인) 두 나라 수령이 '仁'에서 만났다.

仁인: 慈也자야 - "인자할인" - 慈 - 이 글자의 머리엔 쌍십자가(卍) 밑에는 小也 - '작을요' 자가 쌍으로 따라간다.

말하자면 仁(=慈)은 "하늘나라의 두번째 인자(人子, 첫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한 신분(身分)"을 그리는 것.

결론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래로는 만민(萬民) 그리고 동업자(同業者)로는 성령(聖靈)님, 해서 삼위(三位) 일체 하나님" 신분을 내세워 극락내세(極樂來世) 하늘나라를 관리하시는 것.

이 거룩하고 돌도 아닌 하나의 성업(聖業)을 아주 간략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十" 하나로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 "仁"의 정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 아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 마태복음 16:16-18절.

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하늘과 땅을 관리하시는 구세주이시라는 영원한 증거...

① 十은 人의 약자로 "하늘의 숨결이 땅으로 내려온 그림" ② 二는 "하늘과 땅"을 靈肉(영육)간에 전체를 관리하며 善惡을 가려낸다는 깊은 임무를 영원히 관결하신다는 眞理!

2019년

“통일 골든벨” 을 울려라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회장 윤미자

-일시: 2019. 5. 11(토)
-시간: 접수 오후 2:00 / 대회시작 오후 2:30-3:30
-장소: 성요한교회
 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참가대상: 초,중,고 전체 학년 학생
 (한국 본선 진출 자격은 고등학생입니다.)

-참가신청/기본문제집: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 사용(선택순)
<https://sites.google.com/site/2019nuacbostonchapter>

-자세한 문의: 이현경 준비위원장
 nuacbostonhyun@gmail.com

-행사후 스낵

수상- 대상 1명 \$300
최우수 2명 \$200
우수상 2명 \$100
장려상 5명 \$50
참가전체 참가상장 및 상품
 (최우수상은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뉘어 시상됩니다.)

준비위원: 이현경, 조은경, 장수인, 장우석, 한선우, 김우혁, 이재영

안마의자는 체형에 알맞는 제품인지, 생산회사가 어디고, 몇년된 회사 제품인지, WARRANTY 내용 및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 무료 딜리버리 + 완벽한 설치 + 최고의 서비스 • 전문 기술자 상주 최대 5년 워런티 실시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HiTRONS MOTHER'S DAY SPECIAL SALE

★ 선착순 20명 ★ 세일기간 5/30/2019

 <p>INADA SOGNO</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p> <p>\$5,200</p>	 <p>POSITIVE POSTURE BRIO</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p> <p>\$104 /M 48m + Tax</p>
 <p>Panasonic MAJ7</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66⁷⁵ /M 60m + Tax</p>	 <p>Panasonic MA73</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42 /M 48m + Tax</p>
 <p>Orest OS5000</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14 /M 48m + Tax</p>	 <p>FUJIIRYOKI FJ7900</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담채 김치냉장고 120L 무료증정</p> <p>\$148 /M 36m + Tax</p>
 <p>BODYFRIEND REX L+</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LG 스타일러 무료증정</p> <p>\$155 /M 48m + Tax</p>	 <p>BODYFRIEND PHARAOH</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LG 스타일러 무료증정</p> <p>\$155 /M 48m + Tax</p>

<p>INADA NEST</p> <p>\$125 /month 48m + Tax</p>	<p>INADA FLEX 3S</p> <p>\$125 /month 36m + Tax</p>	<p>PANASONIC MA7D</p> <p>\$81 /month 60m + Tax</p>	<p>PANASONIC 30007</p> <p>\$100 /month 36m + Tax</p>	<p>PANASONIC MA10</p> <p>\$83 /month 24m + Tax</p>	<p>COZZIA CZ 710 Qi SE</p> <p>\$166 /month 36m + Tax</p>
---	--	--	--	--	--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p>NJ Main Branch</p> <p>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p>	<p>Bethel Health - NY</p> <p>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p>	<p>Bethel Health - NJ</p> <p>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p>	<p>PA Branch</p> <p>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p>	<p>MD Branch</p> <p>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p>	<p>Mattress- NJ</p> <p>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p>
--	---	--	---	--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9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사람의 인연이나 삶 그리고 사랑에도 때가 있는 법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려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어색하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처음 만나서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사랑이야 오죽할까. 첫 만남에서 불화산 같이 불이 번쩍 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롯불 안재에 덮인 불씨처럼 은은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남은 시절 인연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선가에서는 말한다. 그 이전에 만날 수 있는 씨앗이나 요인은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시절이 맞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 만날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가 시절 인연이 와서 비로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만남이란 일종의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종교적인 생각이나 빛깔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접촉될 때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마음이다. 마음이 열리면 사람과 세상과의 진

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중에서 -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의 구분이 정확한 내 경우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일에서는 그 일에 몰입해 열정과 끈기로 결과가 확실하도록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 달려들지 않으니 때로는 방관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과의 중간 정도면 딱 좋겠는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쉬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삶에서도 나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쩌면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오래전 일이 떠오른다. 세 아이를 키우며 참 많이 몸과 마음이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 딸아이가 세 살 되었을 때 Pre-school(유아원)에 내려놓고 오는 길에 연년생인 두 녀석이 뒷자석에서 잠이 들면 세 시간 동안을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것도 눈 덮이고 추운 겨울에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내

게 버거운 시간이었다. 엄마라는 자리가 나와 너무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이 달래지지 않아 늦은 밤 남편과 세 아이가 잠든 시간에는 끄적이며 남기는 하루의 일기와 붓글씨 그리고 그림(유화)그리기로 나를 달래곤 했었다.

그렇게 서른에서 마흔이 되는 십 년은 세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아니 정신을 다른 곳에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마흔이 되었다. 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해 다닐 무렵이었다. 이제는 무엇인가 나도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그 어느 누가 내 이름을 따로 불러줄 이 없었다. 그저 누구의 아내와 어느 집 며느리 그리고 세 아이 엄마의 이름표만이 나를 말해줄 뿐이었다. 아직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때임을 알지만,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글쓰기와 붓글씨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훈련이 나의 삶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배꼽저 아래의 끝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요동치는 예술적인 기운(기)을 누르

지 못할 때 쉬지 않고 해오던 매일의 글쓰기가 나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와 앞으로의 꿈을 설정하게 했으며 정성 들여 써내려가던 붓글씨의 성경 구절이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덧붙수록 신비해지는 유희를 통해 내 안의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세 아이를 키우며 버거웠던 시간마저도 내게 필요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세 아이가 훌쩍 커버린 지금에야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 성인들의 귀한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자신에게나 또 자신의 삶에서 욕심은 가지도 허욕을 부리지 말자는 얘기가.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 없이 무엇인가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도둑심보는 아닐까 싶다. 사람의 인연이나 삶 그리고 사랑에도 때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나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찾아온 귀한 인연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심안이 열려 비로소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일본이란 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신문기사가였다. 일본에 새 국왕이 등극했다. 이제 새 연호年號를 사용한다고도 했다. 레이와 (영화令和)라는데, 질서와 평화 그리고 조화를 상징한다는 거다. 명치明治와 소화昭和는 그런대로 눈에 익었다. 하지만 평성平成이니 영화令和는 귀에 설다. 남의 나라 연호를 가지고 뭐라 하는건 아니다.

오래전에는 대일對日수입이 수출을 능가해 걱정들 하고 있었다. 그 즈음일게다. 티비 프로듀서들은 부산으로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다. 부산에선 일본티비 방송이 잡히니, 뭐 좀 있을까 보러 간거다. 이젠 한일간 교류가 엄청나고 문화콘텐츠 대일수출이 대단한 모양이다. 일본에선 한국문화를 다시금 도래來문화라 부를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바라본 일본과 일본에서 보는 한국

이 사뭇 다르다. 피차 보는 눈이 다르다는 말이다. 책 총, 균, 쇠 끝에 나온다. 저자가 바라본 한국과 일본이다. 책 저자는 제 3자일테니, 비교적 냉정하게 들여다 봤을지도 모르겠다. 책에선 일본 역사에서 조몬족은 사라졌다고 했다. 한편 조몬족을 잇는 야오리족은 현재 일본민족의 선조 先祖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 야오리족이 한반도 도래인渡來人이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조상이 같다고 해도 너무 오래됐다.

같은 조상을 뒀다면 한국말과 일본어가 비슷하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통점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일설엔, 일본어엔 백제나 고구려의 언어가 섞여 있을 거라 했다.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교류했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백제나 고구려의 말은 신라에 동화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터. 일본 고어古語를

연구하면, 옛적 백제나 고구려 말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한국 방문중이었다. 친구들과 짜장면을 점심으로 먹는 중이었다. 내가 부탁했다. '떡볶이 부족하다. 더 시켜 주시라.' 한 친구가 미간을 찌뿌렸다. '떡볶이 아닌 단무지'. 내 변명이 뒤를 따랐다. '분명 한국떡볶이와 일본 단무지는 다를걸.' 일본 단무지는 거의 마른 찐지죽에 가깝지 않은가? 일본에서 건너왔을 개량품 떡볶이와 중국원산인 짜장면을 한국인이 먹는다. 피차 어울려 섞이고 나눈다. 혹시 떡볶이 고구려나 백제의 고어古語로 찐지는 아닐까?

한반도 동해 끝엔 일본이 닿는다. 가까운 이웃이라 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아는가? 천황제이고, 스시와 다쿠와, 그리고 일본청주만 알고 있던가? 아니, 사무라이와 야쿠자란 말도 귀에 그닥 낯설지 않다. 사람들이 친절하다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남의 일에 간섭하

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친절이다.' (이여령, 일본인에 대하여)

한반도 동해끝은 일본이고, 내나라 내겨레란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 맥박도 같이 힘차게 뛰다. 노래에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라 했다.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뛰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겨레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
(김민기, 내나라 내겨레)

동해는 동해인데, 일본해로 병기併記된다 했다. 동해는 동해다.

"너에게 평화!" 외치게 하시오. (시편 122:8, 공동번역)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어떤 일에 가치와 보람을 찾으며 몸은 비록 묶이나 마음은 자유로워져야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며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 전의 전생 업까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이나 행위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니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마음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3년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축하공연

제3부: 오후 3시 수계식

제가 불자로서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불명이 있으신 분도 새롭게 계를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불자님과 함께하시길...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운 도량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5)

IRA의 기본 지식

세금 보고하는 4월이면 회계사는 개인 은퇴 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정확히는 Arrangement)에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봉급이나 자영업자의 수입이 \$100,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IRA에 \$6,000을 투자하면 그해 소득세를 \$94,000에 대해서 내므로 그만큼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IRA 투자에 관한 기본 지식을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본다.

* IRA 자체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IRA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일 뿐이다. IRA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구(Furniture)들이 투자종목이 된다. 투자종목으로 뮤추얼 펀드, 주식, 채권, ETF, 혹은 어뉴이티, 등이 될 수 있다. IRA가 아닌 계좌는 세금을 이민 낸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 IRA는 두 종류가 있다. Traditional IRA

와 Roth IRA이다.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투자하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수입세를 내야 한다. Roth IRA는 투자할 때 세금공제 혜택이 없지만 찾을 때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 2019년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가 각각 \$6,000씩 투자할 수 있고 나이가 50이 되는 해에 \$1,000 더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당 \$7,000 투자할 수 있다. IRA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한다.

* 결혼한 부부의 수입이 \$103,000이 넘으면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지기 시작하여 \$123,000 이상이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부의 수입이 \$189,000 넘어가면서 Roth IRA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시작하여 \$196,000이 넘으면 Roth IRA에 투자할 수 없다.

*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그해 수입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수입이 많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Traditional IRA에 투자하고 수입이 적다면 Roth IRA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입이 적으면 수입세도 적으므로 세금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 각각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IRA 합계는 \$6,000가 넘으면 안된다. 50살 이상이면 \$7,000이 넘으면 안 된다.

*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투자(401k, 403(b), 457, TSP, 등)와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은퇴투자(SIMPLE IRA, SEP IRA, Solo 401k, 등)와 는 별개로 IRA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한해 \$6,000 투자로 10년 하면 간단한 계산으로 \$60,000이 되기에 IRA 투자를 포

기한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IRA 투자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는가?' 가볍게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더 늘릴 생각만 하면서 IRA 투자를 포기한다. 한 마디로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투자자가 같은 수익률로 \$6,000씩 30년을 투자하면 \$1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난다. 부부가 함께 \$12,000씩 한다면 \$2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나는 돈이다.

주식시장이 미래에도 10% 수익률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교훈은 적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 큰돈으로 불어난다는 사실이다. 수익률이 7%라고 가정해도 부부가 함께 투자하면 30년 후 \$120만 불로 은퇴자금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돈이 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증가한다. 이런 사실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할 때 큰 목돈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3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당시 진흥왕의 총애를 받으며 가장 권세를 부리던 미실, 그 미실의 아들 하종은 15세에 화랑도에 입문하였다. 그리고 24.5세에 화랑의 풍월주가 되기까지 수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기예를 당대의 최고봉들로부터 사사(師事)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에게 보인 충성심, 풍월주의 위에 오른 뒤의 조직내부의 혼란상 등이 화랑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종공은 15살에 화랑에 들어가 역사를 토함공에게 배웠고, 노래를 이화공에게 배웠고, 검술을 문노에게 배웠고, 춤을 미생공에게 배워 모두 그 정수를 얻었다. 늘 진흥왕의 총애를 생각하며 매번 생일과 기일이 되면 낭도들을 거느리고 능침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는데, 비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만두지 않았다. ...을 듣고 ... 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잘 가렸고, 정이 치우치지 않아 ... 중망(衆望)이 있었다.

하종공의 어머니가 미실 공주였기에 때문에 공 또한 대원신통이었다. 문노(文奴)가 불복했기에, 미실은 화합(和合)하고자 이화공의 아들인 보리공을 부제로 삼았다. 보리공의 어머니는 숙명공주였기 때문에, 보리공은 진골정통이었다. 진골은 지소(地召)를 종(宗)으로 삼았고, 대원신통은 사도(沙道)를 종(宗)으로 삼았다. 진골정통의 조(祖)는 옥모

玉帽(옥모)로부터 나왔고, 대원신통의 조(祖)는 보미(寶美)로부터 나왔다. 그렇지만 양골(兩骨)이 서로 뒤섞여, 풍월주가 되는 사람은 각기 단지(單地)의 정황(正況)에 따라서 나왔다. 바라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비록 화합(和合)을 하나 안으로는 서로 반목하여 봉당이 더욱 심하여졌다. 공은 비록 젊었으나 이것을 깊이 경계했다. 골(骨)과 두(頭)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한 결과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아졌으나, 주형(主兄)과 부제(副弟)가 다른 과인(科人) 까닭에 자연히 불화가 점차 드러나서 보리공을 끌어내려 내리 했다. 보리는 평소 공에게 좋게 보였기에, 마음으로 내키지 않았으나 소속 낭도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보리가 울며 공의 인정에 호소했다. 공은 이에 이화공을 찾아가 울게 절단할 가르침을 청했다. 이화공은 "선도(仙道)는 본래 우주의 청원(淸元)의 기(氣)에서 나왔다. 시비(是非)로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형인 모랑공이 오직 그 전부를 얻었는데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 나는 못나서 그 도를 다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모두 권세와 지위로써 위치를 계승했기에,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위치를 버리고 도를 구하여 참된 생이 되도록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했다.]

위에 등장하는 양골(兩骨)은 성골(成骨)이 아닌

라 왕실과 혼인하는 인맥(姻脈)인 진골(鎭骨)과 대원신통을 의미한다. 진골(鎭骨)의 조(祖)인 옥모(玉模)는 제11대 조분왕의 어머니이며 사문국 왕녀의 딸이다. 옥모를 시조로 하여 모계로 이어져 내려온 진골(鎭骨)은 흥모(興模) - 아이혜(愛惠) - 광명(廣明) - 내류(內流) - 아로(阿魯) - 조생(趙生) - 선혜(善惠) - 보도(步道) - 지소(地召)로 이어졌다. 조분왕의 아버지는 골정갈문왕이다. 옥모의 딸인 흥모는 제10대왕 내해왕의 왕비였다. 흥모의 딸 아이혜는 조분왕의 왕비이며, 아이혜의 딸 광명은 제 13대 미추왕의 왕비였다. 광명의 딸 내류가 제18대 실성왕의 왕비 아류와 동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로는 아류의 딸이다(아류는 내물왕의 딸이고, 내류는 미추왕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로는 아류의 딸로 아버지는 실성왕이다. 아로는 제 19대 눌지왕의 왕비이며, 딸인 조생은 내숙공과 혼인하였다. 조생과 내숙의 딸이 선혜이며 그가 제21대 소지왕의 왕비이다. 그들의 딸이 보도왕후이며 법흥왕의 왕비였다. 그들의 딸이 지소태후이고,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과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다.

한편 대원신통의 가계는 고구려의 여인 보미를 시조로 하여 내려온 모계(母系)인데 자세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분파되어 있던 화랑도를 화합시키기 위하여 풍월주와 부제를 다른 과(科)에서 등용

하기도 하였다. 당시 풍월주 하종은 미실(美失)과였고, 보리는 진골(鎭骨)인 낭도들로 구성된 문노(文奴)일파였다. 하지만 진골(鎭骨)의 종(宗)인 지소(地召)가 없었기에 사도와 미실의 대원신통이 득세하였다. 또한 보리공은 이화공의 아들이며, 화랑의 세속(世俗)계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원광(元光)법사의 동생이다. 또한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증조부이기도 하다.

이화공의 가르침을 받고 느낀바 있었던 풍월주 하종은 그 위치를 그만두고 도(道)에 전념하고자 했다. 이에 그를 따르던 화랑도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 즉 그들은 4세 풍월주를 역임한 이화공 자신이 또다시 풍월주의 위에 오르거나 진골(鎭骨)과에게로 넘길 계략으로 하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자녀들은 어머니의 골(骨)을 이었다. 그래서 간혹 아버지와 아들의 골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첨언(添言)하지만 여기서의 골은 성골(成骨)이 아닌 진골(鎭骨)정통과 대원신통을 말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2019년 27차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7년 5월 18일 (토) 9:00 am - 7:00 pm

장소: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
260 Longwood Avenue, Boston, MA 02115



Keynote Speakers

1. Jay H. Chung, Ph.D., M.D., NHLBI,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 Jong Sung (John) Koh, Ph.D., Genosco, Inc

Career Development Session

한인 과학자분들의 학술 발표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커리어 패널 디스커션 및 flash talk를 준비하였습니다.

1. 커리어 패널 디스커션 1 (Industry)
2. 커리어 패널 디스커션 2 (Academia)
3. Flash Talk - 짧은 시간 동안의 발표를 통해 서로의 연구분야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네트워킹 가능

*참여를 원하는 경우 Event brite 신청시 체크 요망

식사 : 아침, 점심 - 커피, 과일 및 샌드위치 등, 저녁 - 한식 및 맥주

등록 : <https://www.eventbrite.com/e/2019-nebs-27th-annual-conference-tickets-59416067056>

1. 날짜: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2. Early Bird Registration (\$10): 4월 28일까지
3. Regular Registration (\$20): 4월 29일 ~ 5월 17일,
4. On-site Registration (\$25): 5월 18일
5. Poster abstract submission: 5월 8일까지

* Poster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하여 abstract 신청을 받습니다. Eventbrite 신청시에 Other information 란의 Poster Title, Abstract 내용 및 출판논문 웹사이트(optional)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포스터 지원자 분들께 포스터 어워드와 소정의 상금(\$50)을 수여할 예정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BS(www.nebskorea.com)는 미국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텡스, 브라운, 보스톤,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톤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막시무스, 맥심, 그리고 막심 고리키

검투사의 승리와 패배를 그린 영화 <Gladiator>는 언제 봐도 새롭고 감명 깊다. 막시무스 데키무스 (Maximus Decimus)란 주인공 역할을 맡은 러셀 크로 (Russell Crowe)는 인간의 배반, 용기, 투쟁, 의지, 승리, 패배를 모두 보여준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영화 『글라디에이터』는 약간 스토리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막시무스 데키무스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 maximus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이란 의미이다. 학생들의 문법용어로 말하자면 라틴어에서 최상급이다. 뜻이 좋아서 그렇지 로마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이름 어딘가에 Maximus란 단어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어떤 왕도 Maximilian이다. 심지어는 여성잡지 이름인 MAXIM도 있고 우리나라 어떤 커피 이름도 MAXIM이다. 심지어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막심 고리키 (Maxim Gorky)라 하였다. 하나 덧붙이자면 Decimus는 앞에서 배운 대로 열 번째란 뜻이다. deci-가 10이란 뜻이니까. 영화의 명대사를 보자.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Commander of the Armies of the North, General of the Felix Legions, loyal servant to the true emperor, Marcus Aurelius, Father to a murdered son, husband to a murdered wife.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내 이름은 막시무스 데키무스 메리디우스, 북부군 사령관, 펠릭스군단의 장군, 진정한 황

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충복이다. 아들을 살해당한 아버지이자, 아내를 살해당한 남편으로서, 나는 이제 복수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다음 생에서라도.)

maximal(최대의), maximize(최대화하다), maximum(최대), maximus(최대의, 최연장의) 등과 같은 어휘들이 남아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레데릭 3세는 자신의 아들이 마치 막시무스처럼 강건한 황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Maximilian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러시아의 소설가 Maxim Gorky도 그 부모가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Maxim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사실 max-는 그 자체가 어원이 아니라 원시 인도유럽어의 meg- (위대한, 큰)이란 어근에서 파생된 것이다. 전설모음 뒤의 /g/는 종종 모음화되기 때문에 meg-는 ma-란 희미한 형태로 남아있기도 하다. 8세기 중엽 신성로마제국을 통치한 샤를마뉴 대제는 이름 Charlemagne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하고 위대한 황제였다. 위대한 현제라 일컫는 권리장전은 Magna Carta라 한다. 권총 이름으로 자주 쓰이는 magnum에서도 이 어원을 볼 수 있고, 마음이 넓다는 의미의 magnanimity에서도 이 어원을 볼 수 있다. 마음 (animo-)이 넓은 (mag-) 것은 magnanimous (도량이 넓은) 이고, 그러한 태도는 magnitude이다. 장대한 것은 magnificent이고 물건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은 magnify이다. 돋보기는 사물을 크게 만들어주니까 magnifying lens이다. 정치권에는 과대망상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megalomaniac이라 한다.

음악이나 미술의 거장을 maestro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meg-의 /g/가 모음화된 결과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할 때의 meister 역시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이다. 또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를 Mahatma Gandhi라 부르는데, Mahatma는 meg-에서 온 것으로 '위대한' 이란 뜻이다. 여담이지만 힌두어에서는 존칭의 의미를 가지는 -ji를

호칭 앞에 붙이기도 한다. 마치 우리가 '선생' 이라 하지 않고 '선생님' 이라 하듯이 그냥 Gandhi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Gandhi-ji라 부른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힌두어의 습관을 반영하여 teacher-ji, mother-ji라 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majesty, major, master 등이 모두 이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최근에도 mega box, mega phone에서 보듯 meg-란 어근을 살려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영화 <Gladiator>, 막시무스 데키무스(Maximus Decimus)역의 러셀 크로(Russell Crowe)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보스톤 전망대

요시미즈 쓰네오와 신라의 로마 문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40여년 전에 요시미즈 쓰네오는 와세다 대학에서 “동양 고대 유리의 연구” 라는 논문을 쓰고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종류의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로마시대 로마제국에서 제작된 유리 그릇
2. 페르시아인 글라스
3. 중국계통 글라스

이중에서 대부분의 로마인 글라스는 4-6세기 경 신라에서 한정적으로 출토된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시대의 백제 고분에서는 단 한 점의 로마인 글라스도 출토되지 않고, 고구려 고분에서는 서관관자(西官管子) 제 2호분에서 단 한 점의 로마인 글라스가 출토된 것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정밀 조사해 보니 금은제품, 순금제 장신구, 반지와 팔찌, 목걸이, 상감 유리, 구슬 등이 예외없이 출토되고, 이러한 장신구들이 저 유명한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했던 디자인과 아주 강한 공통성을 가진 형태로 제작되었고, 로마에서 사용되던 누금세공이란 특수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일하게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영향권에 속해 왔다고 생각해 왔지만 신라 문화는 중국 문화와는 아주 다른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남대총을 비롯한 여러 고분에서 보여주는 로마 문물은 감옥천 팔찌, 금은 장신구 등 많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지만 그중 제일 귀한 보물은 유리그릇, 로마인 글라스였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만 7점, 북분에서 5점의 후기 로마인 글라스가 나왔는데, 그물 무늬와 물결무늬 유리잔은 4-6세기 경에 아주 넓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은 지중해 동안 지방에서 만들어져 흑해지방으로 대량 수출되었고, 그다음에는 스텝루트와 기마 민족들에 의해 다른 로마계통 문물과 함께 전래되었을 것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모두 10기에 달하는 고분에서 25점의 로마인 글라스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황남대총을 비롯한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등 모든 고분에서도 로마인 글라스가 출토되었다. 옥전 고분은 표면에 청색점을 두 줄로 찍은 것이 특징인데, 서아시아 유리잔으로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유리잔이다.

25개 로마인 글라스 중에서 으뜸가는 백미는 국보 193호인 황남대총 남분의 봉수형 유리병을 꼽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 오이노코에(Oinochoe)라고 불리는 이도기는 시리아 동부 연안에서 주로 제작되어 술을 퍼 담을 주전자처럼 쓰였다. 이 병의 주둥이 부분은 나팔꽃잎 모양으로 중국에 전해지면서 주둥이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봉수병, 또는 봉수호(鳳首壺)라고 불려졌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금속 그릇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봉수형 유리병의 주둥이와 목에 파란색 띠를 붙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장식기법이었다.

파란색 손잡이를 위한 금실로 감아 보강한 것으로 보아 금보다는 유리를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황남대총에는 무려 58,500이나 되는 보물이 출토되어 많은 양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 눈을 끄는 것 중, 두가지 만 요시미즈 쓰네오의 언급을 덧붙여 소개한다.

황남대총 북분은 왕비의 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른손 손가락 위치에 5개의 반지를 끼고 있고, 왼손에는 6개의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진 모습으로 출토되었다. 왼손 손가락 하나에는 2개의 반지가 끼워진 셈이다. 황남대총 왕비는 모두 11개의 반지를 양손에 끼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양손에 많은 반지를 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플리니우스의 상세한 설명이 소개되고 있다.

원래 로마에서 반지는 손가락 하나 중 약지에 끼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러다가 검지에 끼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새끼 손가락에 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가운데 손가락만 빼고는 나머지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끼게 되었다. 로마 원로원이나 귀족들 사이에 유행했던 반지끼는 방법에도 가운데 손가락에는 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플리니우스의 반지 끼는 방법은 로마 문화를 수용했던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20개나 되는 반지와 왕의 무덤인 남분에서 출토된 19개나 되는 반지들도 이런 로마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봉수형 유리병(황남대총 남분, 국보 193호, 신라 5세기 이병은 그리스에서 유래한 오이노코에(Oinochoe) 병의 하나이다. 시리아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이 병의 주둥이 부분은 나팔꽃잎 모양이며, 중국에 전해지면서 주둥이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봉수병'이라고 불려졌다. 주둥이와 목에 파란색 띠를 붙였는데, 이러한 장식 기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파란색 손잡이를 금실로 감아 보강한 것으로 보아 금보다 더 유리를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시리아에서 4세기 경에 제작된 유리병으로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봉수형 유리병과 유사한 모양이다.

1세기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로마제국 당국자는 외국인 병사들에게 포상으로 금목걸이를 주었지만 정작 로마 시민들에게는 은 목걸이만 주었다.” 반면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팔찌를 주었는데, 팔찌는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로마 식민지에서 출토되는 금시슬 목걸이와 팔찌에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관습이 반영되고 있었다. 신라 왕릉 출토 금목걸이는 머나먼 로마 세계의 관습이 러시아 남부의 로마 문화권을 거쳐 신라

까지 전달되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황남대총에서 로마의 금시슬과 팔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플리니우스 박물지는 서기 79년에 고대의 모든 지식을 망라한 백과사전으로 유럽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원전으로 서기 79년부터 17세기까지 장장 1,700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플리니우스는 폼페이를 멸망시킨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을 지켜보다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황남대총, 황남대총 반지
황남대총 금관은 왕비가 주인이고 왕은 자각미달로 은관을 쓰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왕비의 손가락에 있어야 할 위치에 오른손에 5개의 반지를 끼고 왼손에는 6개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실이다.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양손에 많은 반지를 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신라에는 로마의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턴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7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